



지구는 왜 똥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마쓰오카 다쓰히데 글 · 그림 | 고향욱 옮김 | 40쪽 | 227 x 304mm | 11,000원 | 4세부터
ISBN 978-89-491-5229-5 74400 / 978-89-491-5018-5 (세트)
2015년 11월 25일 (주)비룡소 펴냄

“쓸모없는 것은 없어, 그게 똥일지라도!”
강아지 한 마리의 사소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
자연의 놀라운 생태를 전해 주다!

■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를 ‘똥’ 주제로 묶어 낸 ‘스토리텔링’ 도감!

‘동물의 똥’을 소재로 자연의 놀라운 생태 순환을 담은 『지구는 왜 똥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가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똥을 누고 있다. 땅에서 하늘에서 심지어 물속에서도. 그 많은 똥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과학 그림책 도감의 대가 마쓰오카 다쓰히데가 ‘똥’에 관한 재미난 질문으로 자연의 생태 흐름을 한 권에 묶었다.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계의 생태 특징을 아우르며 쉬운 설명과 생생한 그림으로 그 흐름을 보여 준다. 스토리텔링 도감의 장점을 살려 동물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곤충류와 해조류까지 폭넓게 담겨 있어 200종 이상의 동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 자연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학 그림책은 길가에 버려져 있는 똥을 발견한 강아지 한 마리의 사소한 호기심으로 시작된다. ‘동물이 누는 똥은 다 어디로 갈까?’ 강아지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곧장 도서관으로 향해 『동물똥 백과사전 - 누가, 어디서, 어떤 똥을 싸는가』라는 책을 찾아낸다. 강아지는 땅, 나무, 하늘 바다에 사는 동물의 발자취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가장 커다란 똥을 누는 육상 동물은 누구인지, 아주 작은 똥을 누는 동물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각각 똥을 누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까지 보고 난 강아지에게 펄쩍 띄운 생각. ‘지구가 똥으로 뒤덮이는 게 아닐까?’

■ 똥의 순환과 동물의 생태를 통해 자연의 기본 원리를 익히다!

책의 주인공 강아지는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상징하는 화자다. 강아지는 동물의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다가 지구가 똥으로 가득 차지 않는 이유를 배운다. 동물의 똥은 빗물에 녹아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되고, 바다로 떠내려가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어떤 곤충은 똥을 먹고 자라고, 어떤 똥은 식물의 씨앗을 옮겨 준다. 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게 도와주는 똥도 있다. 마쓰오카 다쓰히데는 빨쇠똥구리, 홍여새, 육점통잎벌레 등 특정 동물의 한살이를 자세한 그림으로 설명하며 생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똥의 쓰임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책을 보는 아이들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자연의 놀라운 생태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그게 똥일지라도, 아니 똥이기 때문에!

마쓰오카 다쓰히데 글 · 그림

1944년에 니가타 나가오카 시에서 태어났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연 과학 그림책을 그렸다. 지금은 고향 니가타에 있는 작업실에서 오른손에는 붓을, 왼손에는 곤충 채집망과 낚싯대를 들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청개구리 여행사』, 『내가 공룡이었을 때』, 『로봇 탐험대, 공룡 시대로 가다』, 『바닷가 도감』, 『하늘을 난공벌레』 등이 있고, 그린 책으로는 『땅속 생물 이야기』, 『모험도감』, 『자연도감』, 『겨울철 벌레를 찾아서』 등이 있다.

고향옥 옮김

대학과 대학원에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고, 나고야 대학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학을 공부했다. 현재 한일 아동 문학 연구회에서 어린이 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번역가로 활동하며 「개구쟁이 아치」 시리즈, 『양배추 소년』, 『거꾸로 임금님』, 『응급 처치』, 『쥐돌이와 팬케이크』, 『좀 별난 친구』, 『용감한 달사냥꾼』, 『빵을 훔친 꼬마 악마』, 『짚으로 만든 소』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